

마스터 조영수씨 때문에 노래를 망쳤어요

준경승 레전드미션의 허찬미씨의 미련이란 노래를 수도없이 듣고 있습니다. 진한 감정과 진심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들을 때마다 조영수씨의 코멘트 때문에 노래가 아주 감흥이 깨져버립니다. 아주 잘부른 노래를 망쳤어요.

조영수씨는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아 부르스” 라하고 2절 노래 부르는 중에 “아 어렵다”란 멘트(조영수씨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서)를 날림으로서 감정잡고 열심히 부르는 허찬미씨의 노래를 망쳤습니다. 그래도 다른 마스터들은 1절 끝나고 중간타임에 멘트를 함으로서 좀 나아졌습니다. 좋은 노래를 감상하는데 중간에 그것도 나쁘게 평을 하는 조영수씨의 태도는 비단 이노래뿐만아니라 다른사람의 노래 부르는 중간에 멘트를 날림으로서 옆 마스터들을 부화뇌동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마스터의 가장 나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결승전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은 노래를 또 망치는 결과를 낼 겁니다. 인연있는 김연지씨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지말고요 TV조선의 건투를 빕니다..